권안나(2023). 울산시 1인가구의 가족가치관 및 돌봄노동에 대한 사례연구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7(2), 35-47. ISSN 1738-0391(Print). 2713-9662(Online). http://dx.doi.org/10.22626/jkfrma.2023.27.2.003

울산시 1인가구의 가족가치관 및 돌봄노동에 대한 사례연구*

Family Values and Caring Work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Ulsan: A Case Study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연 구 원 **권 안 나****

Ulsan Public Agency for Welfare Family Promotion Social Service
Researcher **Kwon, Anna**

〈목 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인가구의 변화하는 가족가치관과 매일 일상 속에서 이뤄지는 돌봄노동에 주목하여, 가족의 변화나 역동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연령·혼인상태를 고려하여 울산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11명을 선정하였으며, 1인가구의 전반적인 일상생활, 가족가치관, 가사노동 및 돌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울산시 1인가구의 특성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감에 있어 '단순하지만 불안정함'이 공존하고 있었으며, 가족가치관은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의 격차를 보이는 양면적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가족생활을 함에 있어 '원가족 돌봄 및 관계', '경제적 요인'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이중가치체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는 안정된 삶을 위해 전통적인 가족형성의 방법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고립·고독감 해소 및 관계 회복을 위해 사회관계망을 형성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족인식', '가족생활',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각 영역에서 변화가 도모되었을 때 가족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구 결과에 기반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제어 : 1인가구, 가족가치관, 돌봄노동, 사례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family changes and dynamics of and to suggest institutional/policy-level tasks for coping with them, by paying attention to changing family values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ir caring work performed in everyday life. This study selected 11 single-person households residing in Ulsan by considering their age and marital status, and analyzed their overall daily lives, family valu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work and c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single-person households in Ulsan, not only showed the coexistence of "simplicity, but instability" when maintaining and living their own lives, but also showed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s of family values by showing a gap between the perception and reality of diversity. In regard to family life, the participants complained of difficulties in "caring and relationship of family of origin" and the "economic factors", and notably showed the "dual value system". For a more stable life, the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forming social networks to relieve a sense of isolation and loneliness, and to recover relationships, instead of limiting themselves to only the traditional method of family formation. Thus,

*본 논문은 2022년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한 「울산시 다양한 가구형태의 사례에서 본 신가족문화」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수정 및 재구성한 것임.
**주저자, 교신저자: 권안나(annalang@nate.com), https://orcid.org/0000-0002-2208-9718

it would be possible to respond to family changes when changes are promoted in each area of “the perception of life”, “family life”, and the “family & social relationship”, and this research suggests policy-level task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 words : single-person households, family values, caring work, case study

Ⅰ. 서론

한국사회는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젊은 층의 결혼기피로 인한 탈가족화,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저출산·고령화시대로의 돌입 등 종래 개인과 사회의 안정적 기반으로 여겨지던 ‘가족’에 대한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족개념은 혼인관계로 맺어진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를 당연시 여겼으나, 이러한 전통적 개념의 가족관은 핵가족화와 여성의 지위 향상, 저출산과 고령화, 비혼과 만혼의 증가 등 사회변동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한 가족형태에 주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장래가구특별추계(2017~2047)」결과에 따르면, 2047년에는 총 가구는 줄고 1인가구가 보편적인 가구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17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은 28.5%나 2047년에는 37.3%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통계청, 2020)되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정은희 외, 2022)에 따르면, 혼인·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따라 삶의 형태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해 49.1%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결혼이나 출산을 ‘필수’로 여기는 20·30대 여성이 급감세(박정민·박호준·이서경, 2022)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세대가 단순화되며, 1인가구의 증가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1인가구의 증가는 가정 내에서 여러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다인가구와는 달리 일상적인 삶에서 많은 역할을 혼자 부담(송혜림·강은주, 2021)해야 하므로 1인가구의 일생생활, 즉 삶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즉, 1인가구는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요인에 따라 생활실태와 인식이 다르므로 학문적으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며,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점에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 1인가구 연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울산시 1인가구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최근 울산시민의 가족형성(결혼, 이혼 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울산시민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998년 30.3%에서 2022년 15.2%로 낮아져(통계청, 2022a) 결혼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다는 의견, 즉 동거에 대해서는 점점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구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기존의 혼인으로 이뤄진 가정이 아닌, 1인가구가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1인가구의 가족가치의 변화는 개인과 가족을 넘어 사회문화적으로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김혜정, 2021), 가족을 둘러싼 사회 환경 및 가족의 형태·기능·생활양식 등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방식은 곧 돌봄노동 수행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알 수 있으며, 1인가구의 삶을 포괄적으로 이해(송혜림·강은주, 2022)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1인가구는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가족의 구조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그 기능을 잘 수행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성미애·송혜림·조은숙, 2019) 중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인가구의 가족가치관과 돌봄노동에 대한 분석은 1인가구의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그들의 삶을 통합적이고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인가구의 변화하는 가족가치관과 매일 일상 속에서 이뤄지는 돌봄노동에 대해 파악하여 가족의 변화나 역동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개인의 가치관 변화는 가족의 형태·기능·생활양식의 변화에 영향(권안나, 2021)을 미치므로 그 안에서 여러 요인에 따라 생활실태와 인식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1인가구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가족구조 변화에 맞춘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가족정책 실천 현장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1인가구 가족가치관 및 돌봄노동 관련 연구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결혼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과거 비정형적 삶의 방식으로 인식되어 온 1인가구의 증가로 표출(김혜영, 2014) 되고 있다. 특정 사회, 국가, 민족

등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족가치관은 행동 지향적으로 발현되어 집단적·현재적(顯在的)형태의 가족이데올로기(또는 가족이념)로 기능한다(김명훈·정영윤, 1983). 이에, 가족개념과 가치관은 향후 한국사회 가족의 양상을 예측(유계숙·강민지·윤지은, 2018) 하므로 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인가구가 가지는 주된 가족가치관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변화나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보는 태도뿐만 아니라(강은영·진미정·옥선화, 2010; 이삼식 외, 2009) 결혼 전이라도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독립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서구화된 가치관 또한 중립에서 긍정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향후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정경희 외, 2012)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사노동은 크게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의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김외숙·이기영, 2012; 송혜림, 2005)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동일한 범주로 볼 수 있다. 이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재생산노동으로서 가사노동 수행주체의 삶을 조망하는 것은 삶의 특성을 파악(송혜림·강은주, 2022)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한 20~30대 청년 1인가구의 돌봄노동 실태는 주중보다는 주말에 집중해서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날마다 돌봄노동을 혼자서 해야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거나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수행 시간을 줄이고 싶은 요구와 바람도 확인되었다. 또한 인적자원의 경우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송혜림·강은주, 2022)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인가구는 2인 이상의 가구에 비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일상적 지원, 재정적 지원, 심리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통계개발원, 2013)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동안 1인가구는 돌봄대상으로만 간주하였으나 2020년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1a)에 따르면, 1인가구(6,194천명)가 따로 사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비율은 13.0%(804천명)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가 따로 사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 실태를 살펴보면 중·장년층(40대 33.4%, 50대 27.6%)을 부양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돌봄대상은 부모, 자녀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전통적인 부양의식은 점차 감소되는 반면, 사회와 가족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증가(권안나, 2022)하고 있으므로 1인가구는 자기돌봄 뿐 아니라 원가족까지 돌봄의 대상을 확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지면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삶을 선택하는 이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가족정책은 전형적인 형태에 국한되어 다양성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인가구라고 하더라도 (원)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거나 돌봄을 하는 비율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부양과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고려(권안나, 2022)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행된 1인가구 연구는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분석(서지원, 2020; 송혜림, 2020; 송혜림·강은주, 2022)을 통해 1인가구의 삶을 조망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부양 등 돌봄노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주제를 확장하여 총체적으로 고려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울산시 1인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울산시 1인가구는 2021년 29.5%로 꾸준히 증가(통계청, 2022b)하고 있으며, 성별·연령·혼인상태별 1인가구의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울산의 1인가구는 2015년 대비 128.5%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 대비 비율도 2015년 대비 5%p 상승한 점 등으로 미뤄 향후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이윤형, 2022)한 상황이다. 울산의 1인가구는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중년 1인가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34.0%) 상대적으로 청년 1인가구의 비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울산의 여성 1인가구를 100으로 할 때 남성 1인가구 비율은 124.1%로 주요 7개 도시 중 압도적으로 높아 직장을 찾아온 중년 남성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추정(이윤형, 2022)된다. 또한 전국 1인가구는 미혼, 이혼, 유배우자, 이혼 순으로 나타났으나, 울산시 남성은 '유배우자', 여성은 '사별'이 많이 분포(권안나, 2022)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울산시 1인가구는 미혼·비혼 뿐 아니라 일자리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울산시 1인가구의 가족가치관을 살펴보면, 권안나(2021)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으며,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결혼을 선택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나이가 듦에 따라 결혼을 필수로 여기지 않고 향후 가족 구성원이 축소되는 등 가정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혼·재혼에 대해서도 수용적으로 인식하는 등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 수용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1인가구를 지속하거나, 전통적인 혼인 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어, 1인가구를 유지하면서 살거나 가정을 형성하여도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도 자녀출산을 희망하지 않으며, 자녀양육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혼자 사는 '독신'으로의 삶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에서 가족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등 성관계가 결혼이라는 제도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전통적인 결혼관은 변화하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대체로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어 사실혼, 비혼 동거까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 아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

이 높았으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가족을 유지하지 않고 다양한 가정형태를 수용하고 있으나, '자녀출산'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한국인들은 인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괴리감(이경희, 2012)을 느끼고 있으며, 이중가치체계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삶의 방식과 가족관이 변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상가족이데올로기 및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여 삶의 다양성을 포용하기 힘든 현실로 해석할 수 있으며, 1인가구의 다양한 가치관 수용 및 가정의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가족정책의 재정비(권안나, 2021)가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권안나의 연구(2022)에서는 울산시 1인가구는 '오롯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만,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1인가구의 80%이상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생계부터 가사노동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낮은 월평균 가구소득과 원룸·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노후대비를 위해 경제적 대비를 하는 비율이 44%로 나타나 미래를 설계하기에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인가구의 혼인형태는 미혼뿐 아니라, 사별, 별거, 이혼 등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는 등 1인가구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의 일상생활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균형 잡힌 식사, 가사, 아프거나 위급 시 대처가 어려운 점이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인가구가 따로 사는 가족의 경제적 부양과 장기간 돌봄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모'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는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을 '부모'로 응답하였으며,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희망하는 노후생활 장소 및 동거대상을 살펴보면,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보내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는 혼자 살고 있더라도 향후에는 누군가와 함께 거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인가구는 혼자 살아가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혼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원가족과의 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유지가 중요한 사안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1인가구의 경우 '혼자산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성별·세대에 따른 생활방식이 상이한 것이 특징(권안나, 2021)이다. 이를테면 노년층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나, 청년층, 중·장년층은 보다 결혼제도(결혼, 이혼, 재혼 등)에 보다 수용적으로 나타나 앞으로 다양한 가치관으로 1인가구의 삶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성별·세대에 따라 가치관이 상이하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삶으로 이어지므로 이들이 가지는 상이한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사례연구

본 연구는 울산시 1인가구의 변화하는 가족가치관과 일상 속에서 이뤄지는 돌봄노동을 파악하기 위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1인가구는 '혼자산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성별·세대에 따른 생활방식이 상이한 특성(권안나, 2021)을 가지고 있다. 사례연구는 하나의 특정한 상황, 기록, 대상,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분석(Merriam, 2005; Yin, 2005)하는 연구이다. 다른 연구에 비해 더 구체적이고 맥락을(Stake, 2000) 파악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의 종합적인 본질을(신경림 외, 2004)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 사건들을 통해 전체적이며 의미 있는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면서 복잡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해준다(Yin, 1994).

이에,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가족가치관과 매일 일상 속에서 이뤄지는 돌봄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한 가족의 변화나 역동성에 대해 심도 깊게 접근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례연구는 개별의 경험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맥락적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나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하는데 적합(Stake, 1995)한 이점이 있다. 따라서 1인가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가족기치관과 돌봄노동에 따른 삶의 변화나 경험적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방법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선택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연구에 관심과 참여 의사를 표현하고, 1인가구의 삶에 대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 특성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이며,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울산시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청년에 비해 중년 1인가구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30대부터 70대까지 생애주기별로 연령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둘째, 혼인상태별로 울산시 남성은 '유배우자', 여성은 '사별'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혼인상태를 고려하여 울산시에 혼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총 11명을 섭외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는 연구 목적과 인터뷰 방식, 익명성 보장, 원치 않는 경우 면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참여자 권리, 인터뷰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는 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1인가구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번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자녀유무	반려동물 유무	근로형태	1인가구 생활기간	1인가구 동기
1	A	여	30대	미혼	없음	있음	상용근로자	2년	부모님과의 갈등
2	B	여	30대	비혼	없음	없음	상용근로자	15년	친구와의 거주공간 계약 종료 및 생활패턴 상이
3	C	여	40대	미혼	없음	없음	상용근로자	2년	부모님과의 갈등 및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
4	D	여	60대	사별	있음	없음	상용근로자	6년	사별 및 자녀독립
5	E	여	70대	사별	있음	없음	기타	7년	사별 및 자녀독립
6	F	남	30대	이혼	없음	없음	상용근로자	1.6개월	이혼
7	G	남	30대	미혼	없음	없음	상용근로자	8년	타지역으로 취업
8	H	남	30대	미혼	없음	없음	상용근로자	14년	학업 및 취업
9	I	남	40대	기혼	있음	없음	상용근로자	1년미만	타지역으로 취업
10	J	남	40대	기혼	있음	없음	상용근로자	6년	타지역으로 취업
11	K	남	50대	기혼	있음	없음	상용근로자	3년	타지역으로 취업

한편,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직업(종)은 공개하지 않고, 근로형태에 대해서만 공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절차

과거 울산시 가구형태는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가 보편적이었으나,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이들의 삶의 방식은 향후 가족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에,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한 1인가구의 변화하는 가족가치관 및 돌봄노동 등 일상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후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메일을 통해 연구목적 및 관련 내용 등을 안내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 9월 19일~ 9월 30일 중 총 11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인터뷰가 어려워 온라인상으로 장시간 할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면조사 후 평균 1시간 내외로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1:1로 이뤄졌으며 총 11명의 연구 참여자 중 2명만 직접 만나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심층면접조사는 반구조화 된 질문지의 서면 자문의 결과를 토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피력하도록 진행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울산지역 1인가구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은 어떠한가?
둘째, 울산지역 1인가구의 가족가치관은 어떠한가?
셋째, 울산지역 1인가구의 가사노동 및 돌봄은 어떠한가?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자녀 및 반려동물 유무, 근로형태 등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1인가구 생활 기간 및 동기, 의·식·주·여가생활 및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다양한 가구형태(1인가구, 이혼, 재혼, 다문화, 주말부부, 동거 등) 증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인식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자신뿐 아니라 (원)가족까지 확대하여 가사노동 및 돌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전반적인 사안을 통해 1인가구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인터뷰 내용은 1인가구의 일반적 특성, 전반적인 일상생활, 가족가치관, 가사노동 및 돌봄 등 반구조화된 서면 질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서면 질문지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질의사항 및 세부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2차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진행 완료 후 서면 자문결과와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주제별로 분류하여 재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울산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연구문제에 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1인가구의 전반적인 일상생활, 가족가치관, 가사노동 및 돌봄의 특성을 재구성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의 전반적인 일상생활

1) 1인가구 형성원인 : '각양각색(各樣各色)'

연구 참여자의 1인가구 형성원인을 살펴보면, 친구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계약종료 및 생활패턴 상이, 부모님과의 갈등 및 효율적으로 시간활용, 사별 및 자녀독립, 이혼, 취업 등 가지각색으로 나타났다. 이신애, 황원경과 정승환(202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의 형성원인이 '비자발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학교/직장 때문에',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못 만나서'와 같이 비자발적인 요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시 1인가구도 취업, 원가족 및 동거인(친구 등)과의 갈등, 사별 등 비자발적인 요인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주로 나타났다. 한편, 비혼주의가 1인가구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으나, 울산시는 통계 결과와 동일하게 기혼, 사별 등 혼인상태별로 1인가구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내는 지금 서울에서 이제 애들을 보면서 지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동안 여기 울산에 내려와서 일을 하다가 주말에 아내와 아이들과 합류하는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I)

"맨 처음에 2017년경 와이프가 만삭일 때 직장 때문에 같이 울산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 타고 다녔는데 와이프를 케어해 줄 수가 없으니까 와이프를 친정으로 돌려보냈죠. 그대로 계속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J)

"일단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가사와 관련된 부분이 어머님이 계속 해 주시게 되다 보니까 제가 직장생활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미안한 부분도 있고… 제 삶의 방식과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을 때 좀 억압되는 느낌, 자유롭게 시간을 제 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그냥 서로를 위해서 제가 나와서 사는 거죠." (연구 참여자 A)

"너무 가족과 함께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과의 세대 갈등도 있고 돌봄의 문제라든지…아무래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을 때 업무의 효율이 조금 더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원가족과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1인가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C)

"친구가 자기가 살던 아파트가 계약이 다 돼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계약이 끝날 상황이라서 합치게 됐어요. 그런데 친구랑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서,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친구는 자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 계약이 만료되면서 따로 살게 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B)

"어 봐라, 2015년도에 돌아가셨거든 아저씨(배우자)가… 그 뒤로 아들은 결혼하면서 혼자 살게 됐지…" (연구 참여자 E)

"3년 정도 (전배우자와) 같이 지내다가 이혼하면서 1인가구로 지내게 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F)

2) 1인가구 일상생활 : '단순하지만 불안정한' 일상

연구 참여자의 의·식·주, 여가생활 등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단순화'와 '불안정'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도출되었다. 먼저, 1인가구의 경우 가사노동 등을 혼자서 수행해야 하다 보니 가능한 한 의식주 문제를 '단순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사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탁소를 활용하거나, 가정간편식·배달로 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귀찮아서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쉽게 확인되는 등 '자기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가사노동 및 자기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대적으로 자유시간이 많은 1인가구는 여가생활이 활발히 이뤄지기 보다는, 쉼이 있는 주말에 주로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은 하되, 그 안에서의 질적인 부분은 담보되지 못한 채 '불안정'한 것이 특징이다.

"부피가 큰 옷은 드라이클리닝을 하는데, 속옷이나 양말 정도는 일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번거로워서 원룸 앞에 있는 코인 세탁소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도 집에서 뭘 해 먹거나 그런 경우 거의 없고 들어가면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사서 아침에 먹고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저녁에 가끔 맥주 사서 들어가서 한잔한다든지 이 정도? 거의 먹는 거는 그 정도만 집에서 해결하고 점심 저녁은 항상 밖에서 먹죠." (연구 참여자 I)

"사실은 집에서 밥을 잘 차려 먹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1인가구는 정해진 유통기한 내에 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일단은 집에서 음식을 하지 않고, 외식을 주로 하거나 아니면 밥을 먹을 때는 간단히만 먹는다. 이런 것들을 좀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탁이라든지 청소든 기본적으로는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비용을 들여서 하겠다… 그래서 세탁소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청소는 가능한 한 많이 안 하는 게 좋으니까 많이 어지르지 않으려고 해요. 최소화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 참여자 C)

"아침은 간단하게 계란이나 그다음에 마실 수 있는 우유나 이런 것들을 미리 챙겨놨다가 전날에, 출근하는 차 안에서 대부분 먹고요. 그리고 퇴근 같은 경우에 늦게 오는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거의 해결을 하고 그 외에는 샐러드나 이런 것들 좀 챙겨 먹고요." (연구 참여자 A)

"아무래도 혼자 있으니까 그냥 대충 먹게 되고 좀 그런 경우가 많죠. 주말에도 막 이렇게 애들 반찬 좀 해주려고 내가 장을 봐서 해주면, 거기서 내가 그거 조금 해서 먹지, 막 내가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게 되지는 않더라고…" (연구 참여자 D)

"이게 장을 보다 보면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비효율적이라서 제가 막 식욕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좀 아쉽긴 아쉬운데 그래서 그냥 안 먹습니다." (연구 참여자 B)

"간혹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러 가기도 하고 웬만하면 집에서 좀 해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G)

"주중에는 대부분 회사 끝나면 저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일 때문에 만나는 일 빼놓고는 그렇게 뭐 여가생활을 할 수는 없고 주중에는, 주말에는 올라가니까 그쪽에서 제가 하던 취미 활동이나 등산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지인 만나서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대부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여가활동을 하죠." (연구 참여자 K)

3) 1인가구 일상생활의 명암(明暗) : '자유로움 속 불안함'

연구 참여자에게 1인가구로 지내면서 가장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물어본 결과, '자유로움 속에서 정서적 · 경제적 불안함'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사생활을 보장받고, 자신만의 확고한 삶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자유로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직장 등으로 인해 원가족과 분리된 기혼 1인가구도 자신의 삶(업무 등)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1인가구로 있으면서 좀 자유롭다는 거 나의 생활을 내가 보장할 수 있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것들을 편안하게 떠날 수 있을 때 떠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나한테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누군가의 구속을 안 받아도 되는 자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 게 가장 좋고…" (연구 참여자 A)

"직장이 서울이었다면 애들도 돌보랴 일도 하랴 정신이 없었을 텐데 온전히 그거에만 내가 해야 할 일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시간 투자할 수 있다는 집중도의 차이는 확실히 좋죠. 그거는 그건 확실히 좋은데 육아의 부담 없이." (연구 참여자 I)

"자기 시간이 많죠. 자유 생활이 많고 육아에다 할애해야 될 나이인데, 많이 안 하는 거에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중략) 조금 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야근도 많이 합니다. 집에 아기 키우고 있으면 그런 건 어렵죠. (중략) 승진이나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려왔고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J)

"좋은 점은 일단 행동에 제약이 없죠. 일단 예전에는 제 가족과 같이 생활하면 개인적인 일이나 이런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집에 눈치를 보거나 이럴 경우가 많은데 혼자 있을 때는 일 볼 때 일 보고, 쉴 땐 쉬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G)

이에 반해 누군가가 방문 할 수 없는 상황에 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를테면, 코로나와 같은 재난상황, 수술을 하는 등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1인가구는 경제적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직장 등의 이유로 혼자 거주하는 기혼 1인가구는 원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하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안정감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나한테 무슨 사고가 생기면 그걸 알 사람도 없고, 알릴 사람은 많지만 당장 어떻게 내가 아파서 정말 차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내 스스로를 병원으로 몸을 옮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있더라고요. 무슨 심장마비 이런 게 아니라 설사 넘어져서 갑자기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좀 아팠을 때도 이제 혼자니까 약 타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I)

"저 일하다가 좀 크게 다쳤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너무 걱정을 하시니까 혼자 그냥 다 해결을 하는 거죠. 수술하고 와서 재활하는 거든 집에서 생활하는 거든 불편해도 이제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구 참여자 G)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는데 저는 좀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때 좀 생각이 한 번 났었고 그때 어려운 점은 그 외에는 잘 모르겠네요." (연구 참여자 J)

"남편이 없으니까(사별) 무서울 때도 있지. 주말 같은 때 옆집이랑 다 어디 가버리고 집을 비우면 무서워. (중략) 그리고 돈 때문에 많이 걱정되지.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세금 내야 하지, 또 뭐 사 먹어야 그래도 반찬 그래도 고기도 한 번씩 사 먹어야지 그런데 자식들한테 생활비 달라 뭐 이런 소리는 못 하잖아. 저거가 주면 받고 이런 것이지, 자식들도 (형편이) 쫓기니까." (연구 참여자 E)

"혼자 있으니까 저녁 때 대부분 퇴근하고 오면 가족끼리 대화하거나 이런 어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조금 불안하다는 게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조금 편안한 안정감은 조금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연구 참여자 K)

2. 1인가구의 가족가치관

연구 참여자의 가족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결혼 및 가족형성, 출산 및 자녀양육, 성역할, 노부모 부양의식 등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하였다. 1인가구는 결혼과 출산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탈가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결혼 및 가족형성 : 혼인에 기반한 전통적인 가족형성 탈피 및 합리적인 선택에 기반

기혼 1인가구를 제외하고는 현재 1인가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의 경우 혼인에 기반한 가족형성을 무조건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가치관 및 삶의 패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기성세대로 갈수록 다양한 가족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데, 60~70대도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등 1인가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처럼 미(비)혼 1인가구가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결혼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보는(강은영 외, 2010; 이삼식 외, 2009)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저는 혼자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자유롭고 이미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 이거는 좀…" (연구 참여자 D)

"좋은 사람 만나면 함께 살거나 그럴 계획은 없어. 혼자서 외롭지도 않고 자식이랑도 같이 안 살 거예요." (연구 참여자 E)

"결혼은 저한테는 아직은 좀 그래요. 아직은 좀 멀게 느껴져요. 멀게 느껴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60대에 해도 되고 70대에 해도 되고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연구 참여자 B)

"정말 마음이 맞는 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상호 나와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서로를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연구 참여자 A)

"사실은 처음에 이혼하고 나서는 나는 비혼주의였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월급이 사실 둘이서 살기에는 좀 모자라지만 혼자서 먹고사는 데 크게 부족함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비혼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연구 참여자 F)

또한 누군가와 함께 살더라도 전형적인 결혼 형태가 아닌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라 동거에 대해서도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의 동거뿐 아니라 철저한 공간분리를 통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가까이 사는 등 동거의 형태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혼외출산에 대해서도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경향이 있으나,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동거하거나 아이를 낳고 차별 없이 기르기에는 제도적인 미흡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동거는 저는 크게 문제없다고 봐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할 의향은 있어요." (연구 참여자 G)

"예전에는 동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어차피 지금 이혼율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게 저는 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만나보고 결혼을 선택하겠지만, 진짜 만났을 때랑 결혼하고 이제 같이 살 때랑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이런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같이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완전 다른 사람을 보는듯한 되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꼭 동거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뭐 집에서 같은 집에서 데이트를 많이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활을 좀 같이 해보는 것은 저는 지금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 참여자 H)

"동거보다는 옆집에 산다든지 조금 분리된 공간에서 약간 땅콩 주택 이런 것처럼 그런 형태의 삶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B)

"저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라서 저는 만약에 한다면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이후에 동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남들이 자기가 편하고 어떻게 사는지는 외야에서 말을 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행복하다면 된 거고 그걸 뭐라고 제3자가 왈가왈부하는 게 이상한 거죠. 비혼 동거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행복하다면 그거를 제3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오히려 지금 출산이 낮아져서 문제인데 비혼 동거 커플에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제도, 이상하게 바라봐주지 않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바뀐다면 그러면 오히려 출산율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연구 참여자 I)

2) 출산 및 자녀양육 : 낮은 출산의향 및 '2인 이하' 가구 비중 증가 예측

1인가구가 가족을 형성하더라도 만혼화,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출산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부부가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러고 싶다는 계획이라기보다 그냥 지금 생활도 서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은 조금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 아이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을 하더라도 그냥 2인으로 살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H)

또한 출산 및 양육에 있어 성별에 따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출산 의향이 더 낮은 것으로 보이며, 자녀를 낳을 경우 경력 단절과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남성은 출산 및 자녀양육에 있어 '행복'으로 인식하는 등 여성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며 사는 '혼펫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아이를 낳지 않는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자녀를 낳아서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커요. 그리고 나의 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사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사 부담이 남성보다는 많은데 그 가사 부담하기 위해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 내가 이때까지 경력을 모든 걸 버리고 그걸 책임 전담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왜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생각도 들고요." (연구 참여자 A)

"저는 사실 좀 옛날부터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 행복한 가족 꾸리는 게 사실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행복한 가족으로 만드는 게 좀 꿈이었고요. 누군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 자녀와 함께 하는 삶… 가정이 있으면 안정감도 느끼고 하니까 행복하겠죠." (연구 참여자 F)

"아이는 전혀 생각 없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이게 좀 웃길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반려견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생기게 되면 강아지들이 밀려날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들한테는 저밖에 없잖아요. 나는 회사도 가고 복싱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하는데 반려견은 저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내 사람 아이가 생기면 밀려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생각이 없습니다." (연구 참여자 B)

3) 성역할 :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의 완화

결혼준비, 가사노동, 육아 등에 따른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역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고정관념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여

성가족부, 2021b)에 따르면,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2016년 42.1%에서 2021년 29.9%,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응답은 2016년 53.8%에서 2021년에는 17.4%로 줄어드는 등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다. 한편,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완화되고 있으나, 가족형성 및 출산의향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것을 통해 현실과 인식 간의 괴리감이 여전히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성별에 관계없이) 상황에 맞게 해야죠, 뭐.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갖고 오라고 하겠어요." (연구 참여자 B)

"제가 일을 할 때는 아내가 애들을 돌보고, 아내가 일할 때는 제가 애들을 돌보고 이런 식으로 좀 가사나 육아를 반반 정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세대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연구 참여자 I)

"집안일은 나눠서 해요. 쓰레기 버리는 거 재활용하는 거, 다림질, 세탁은 제가 해요. 다림질, 이런 건 결혼해서 지금까지 제가 해요." (연구 참여자 K)

4) 노부모 부양의식 : 자기돌봄 및 부모부양 등 이중 부양부담

연구 참여자에게 노부모 부양의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를 당연시 여겼으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테면 부양 당사자인 부모도 자신의 노후에 대해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으며, 자녀 역시 자신의 삶을 유지하면서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인가구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노동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나 자기돌봄 뿐 아니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 이중부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한테는 돈 받는 거 1원도 없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안 살면 안 돼." (연구 참여자 E)

"지금처럼 뭐랄까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의 범위 내에서 내가 좀 시간을 더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할 거지만 만약에 몸이 아프셔서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힘들어져서 24시간 다시 그러니까 원가족으로 복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한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크신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연구 참여자 C)

1인가구 가족가치관을 통해 살펴보면 결과, 미래의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 1인가구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사실혼'에 기반한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분리된 공간, 또는 가까운 곳에서 함께 사는 가족형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다양한 가치관을 기반으로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인식하는 삶의 형태를 선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가족형성 등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1인가구의 가사노동 및 돌봄

1) 1인가구 가사노동 및 돌봄 : '귀찮고 불편함'

1인가구는 '혼자' 살고 있지만, '자기돌봄'에 대해서도 번거롭고 귀찮으며, 성가신 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사노동 강도나 피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등을 활용하거나 끼니를 밖에서 사먹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돌봄노동을 혼자 수행하다보니 인적 · 물적 자원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테면, 함께 거주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1인가구는 가족 뿐 아니라 반려동물 등 가사노동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해서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누워서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있다가 잠들고 이런 시간 자체를 그냥 많이 보냈었어요. 그냥 너무 귀찮고 힘들고 일하느라 지친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러다 잠들고 그 또 깨면 또 배고프니까 밥 먹고 거의 뭐 그냥 본능에 의해 생활하는…" (연구 참여자 H)

"결국 내가 뭘 해먹으면 버리는 게 또 그만큼 많더라고요. 무 하나를 사 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국에 넣어서 끓여 먹으면 결국 한 3분의 1 정도는 상해서 버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굳이? 그러다보니 결국 사 먹는 경우가 많아요." (연구 참여자 I)

"출장이나 집을 비우게 되면 같이 살았던 친구한테 부탁해요. 친구가 지금 할아버지 댁에 사는데 옛날 집이라서 집도 넓고 마당도 있는 집이라서 강아지들을 봐주기에 좀 그래도 괜찮은 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하고 있어요." (연구 참여자 A)

"제가 직접 다 하면 힘들겠지만, 요즘에 로봇청소기도 있고 식기세척기나 건조기나 이렇게 다 가전제품이 있으니 그거 쓰고 생활하니까 사실 크게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도 본인이 직접 회사에 월차를 쓰거나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직장생활을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연월차 같은 것도 사실은 제한적인 부분이고 하니까 혼자서 다 해야 하니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이혼 전에는 아내와 나눠할 수 있었는데…" (연구 참여자 F)

2) 1인가구 가사노동 및 돌봄의 명암(明暗)

: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니다

1인가구는 '혼자' 살고 있지만 이들의 주변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비)혼인 1인가구는 부모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등 돌봄에 대한 주체자로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가족들이 뭔가 필요로 할 때 제가 빨리빨리 또 해줄 수 있고.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심부름을 해도 또 빨리빨리 할 수 있죠." (연구 참여자 F)

"사소한 거 필요한 거 이렇게 구매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부모님들 핸드폰으로 이렇게 구매하시거나 이런 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그거를 해드려요. 제가 아직 미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돌봄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자유로워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책임을 많이 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연구 참여자 B)

"거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가족들, 결혼한 오빠나 언니가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집 밖을 나가는 행사 같은 활동은 돌봄 활동은 제가 전담을 하죠. 사실 대부분의 이렇게 소소한 뭐랄까 직접 가서 뭔가를 신청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은행을 가야 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내가 움직여서 뭔가 부모님의 업무를 대신해 줘야 하는 일이 자매 중에 언니가 담당을 해주는 편이고 그 외의 것들은 제가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물건이 필요하면 배달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간식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제가 해드리는 편이죠."(연구 참여자 C)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주말에 가면 어머니 찾아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연구 참여자 K)

뿐만 아니라 기혼 1인가구는 자녀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 및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노인 1인가구는 독립한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1인가구는 '원가족'으로부터 주거공간만 분리된 것이지 원가족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뿐 아니라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육아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좋은데, 이게 육아의 부담이 없다는 게 육아의 부담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가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부채는 항상 있고요." (연구 참여자 I)

"육아에다 할애해야 될 나이인데 (중략) 아기를 자주 보고 싶은데 자주 못 보는 거죠." (연구 참여자 J)

"오히려 지금은 내가 그래도 아직 일을 하고 나 혼자니까 오히려 아이들한테 제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D)

한편, 1인가구는 가사노동 및 돌봄으로 지친 일상 속에서 현재의 생활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된 특징으로는 '소속감'도 중요하게 느끼고 있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같이 나들이를 가거나, 가족만큼 가까운 친구와 주변에서 거주하면서 서로의 삶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채우며 살아가는 등 자신만의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의 친밀함 느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자녀, 형제자매가 4명인데 모두 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다들 원래 가족이었던 사람이 다 각자의 가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가족에서 소속감을 느끼는데… 저는 소속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온 가족이 전체 다 모였을 때." (연구 참여자 C)

"어제 김밥 싸서 대공원에 갔다 왔어. 그래 그런 게 또 좋다니까. 아니 먹는 것보다 셋이서 만나서 있잖아, 이런 저런 가정사 이야기도 하고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연구 참여자 E)

"대학교 동기 친구들이고,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처에서 생활하고 그러죠. 서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G)

Ⅴ. 결론

본 연구는 울산시 1인가구의 변화하는 가족가치관과 매일 일상 속에서 이뤄지는 돌봄노동에 주목하여, 가족의 변화나 역동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울산시 1인가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울산시 1인가구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감에 있어 '단순하지만 불안정함'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특성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등을 혼자서 수행해야 하다 보니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단순화하여 기본적인 생활은 하되, 그 안에서의 질적인 부분은 담보되지 못한 채 불안정하게 지내고 있었다. 특히,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가사노동 및 자기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의 가족가치관은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벗어난 사실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의 모습 및 가치관 변화가 예측된다. 특히, 남성은 출산 및 양육에 있어 '행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여성은 반대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성별에 따른 가족형태가 상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물리적인 공간은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부모로부터 정서적 ·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거나 독립한 자녀돌봄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의 격차를 보이는 양면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가족생활을 함에 있어 '원가족 돌봄 및 관계', '경제적 요인'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이중가치체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돌봄 등을 지속하고 있어 온전한 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분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로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힘'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는 선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 맞게 취사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부담을 느끼면 안 되나 이에 대한 균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중가치체계는 사회적 문제를 편의주의로 해석(이경희, 2012)되어 돌봄 및 부양문제를 가족의 몫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는 안정된 삶을 위해 전통적인 가족형성의 방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고립 · 고독감 해소 및 관계회복을 위해 사회관계망을 형성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가족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해 세대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족인식', '가족생활',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각 영역에서 변화가 도모되었을 때 가족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 및 실천현장에서의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인식' 측면에서 일상생활 속 가족다양성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사실혼, 동거 등 더 이상 가족의 삶의 형태는 유형화하기 어려우며,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현재 가족정책은 여전히 법적 혼인 관계에 국한되어 기존 핵가족을 위한 정책을 유지하면 사각지대 발생 및 사회적 문제(권안나, 2022)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 가족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삶의 모습과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가족 다양성 관련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한편, 출산 및 양육에 있어 성별에 따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성별에 따라 다양한 삶의 형태를 성평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가족 관련 가치와 인식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족생활' 측면에서 세대 · 가족형태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삶을 희망하나, 인식과 실태 간의 일치를 위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가치체계는 어떤 일관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편의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하면서 결국은 가족 간의 갈등이나 문제를 유발한다(성미애, 2006). 이에, 이중가치체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갈등이나 인식의 차이 등을 파악하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하고, 돌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 장년 1인가구는 성인 자녀돌봄을 수행하거나, 노부모의 정서 · 경제적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도 쉽게 포착되었다. 이에, 부모세대는 자녀를 떠나보내고, 자녀세대는 부모로부터 정서 · 경제적 독립 등 독립성과 친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개선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1인가구는 생계부터 가사노동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므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전(全)생애지원 설계 및 자원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1인가구는 현재의 생활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지인과 나들이를 가거나, 가족만큼 가까운 친구와 주변에서 거주하면서 서로의 삶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채우며 살아가는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에,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인적 ·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를 지지해줄 수 있는 긴밀한 공동체 ·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 간에 왕래를 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 공동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울산시 1인가구의 가족가치관 및 돌봄노동의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중 · 장년, 기혼 등 울산시 1인가구의 특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 대상자를 모집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가족가치관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돌봄노동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나, 가족정책 현장에서 이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세부적으로 나눠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가치관 변화에 따라 돌봄노동(부양, 양육 등)에

대해 성별·세대별로 인식하는 정도가 다름이 포착되어 이후 연구에서는 성별·세대별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도출하고 이에 기초한 맞춤형 사업이나 제도를 설계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은영·진미정·옥선화(2010). 비혼 여성의 비혼 자발성 관련요인 탐색: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2), 135-144. DOI : 10.6115/khea.2010.48.2.135.
2) 권안나(2021). 울산광역시 1인가구의 가족가치관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이슈와 과제. 울산여성가족개발원.
3) 권안나(2022). 울산시 다양한 가구형태의 사례에서 본 신가족문화.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4) 김명훈·정영윤(1983). 심리학. 서울: 박영사.
5) 김외숙·이기영(2012).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DOI : 10.978.8920/929250.
6) 김혜영(2014). 유동하는 한국가족: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5(2), 255-292. DOI : 10.22862/kjsr.2014.15.2.008.
7) 김혜정(2021). 부산지역 가족가치관의 변화 및 영향 요인. 여성연구, 108(1), 309-329. DOI : tws.2021.108.1.011.
8) 박정민·박호준·이서경(2022). 청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53(4), 33-54. 한국사회복지연구회. DOI : 10.16999/kasws.2022.53.4.33.
9) 서지원(2020). 청년세대 가사노동 시간사용의 변화.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0년도 온라인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0) 성미애(2006). 질적 연구를 통한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에 대한 진단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59-72. UCI : G704-000320.2006.24.3.002.
11) 성미애·송혜림·조은숙(2019). 가족과 문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12) 송혜림(2005). 가사노동론. 울산 : UUP.
13) 송혜림(2020). 청년 1인가구의 가사노동.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0년도 온라인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4) 송혜림·강은주(2021). 취업 1인가구의 일-생활 균형: 20-30대 미혼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55-70. DOI : 10.22626/jkfrma.2021.25.4.005.
15) 송혜림·강은주(2022). 취업 청년 1인가구의 돌봄노동에 대한 경험.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4), 25-38. DOI : 10.22626/jkfrma.2022.26.4.003.
16) 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7) 여성가족부(2021a). 2020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18) 여성가족부(2021b). 양성평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19) 유계숙·강민지·윤지은(2018). 청년층의 가족개념과 가치관. 가족과 문화, 30(3), 42-69. DOI : 10.21478/family.30.3.201809.002.
20) 이경희(2012). 한국사회 이중가치체계의 특성과 변화. 윤리연구, 84, 33-52. DOI : 10.15801/je.1.84.201203.33.
21) 이삼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박세경·도세록(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 이신애·황원경·정승환(2022). 한국 1인가구 새롭게 들여다보기.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3) 이윤형(2022). 울산, 1인가구 증가 따른 중장기적 종합지원 방안 마련해야. 울산경제사회브리프. 131.
24) 정경희·남상호·정은지·이지혜·이윤경·김정석·김혜영·진미정(2012). 가족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 정은희·신재동·우선희·하은솔·김지원·박나영·김현규·이지혜·정해식·홍성운·손창균·이봉주·강상경·박정민·정원오·김화선·임은정·김건(2022).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6) 통계개발원(2013). 한국의 사회동향.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27) 통계청(2020). 「장래가구특별추계(2017~2047)」. 통계청.
28) 통계청(2022a). 「사회조사」. 통계청.
29) 통계청(2022b).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도자료. 통계청.
30) Merriam, B. S.(2005). 정성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강윤구 외 공역). 서울: 교우사. (원서 1998출판).
31) Stake, R. E.(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질적 사례 연구(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공역). 서울 창지사. (원서 1995 출판).
32) Stake, R. E.(2000).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질적 사례 연구(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공역). 서울 창지사. (원서 2000 출판).
33) Yin, R. K.(199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2nd ed.). Thousand Oaks, CA: Sag
34) Yin, R. K.(2005). 사례연구방법(신경식, 서아영 공역). 서울: 한경사. (원서 2003 출판).

■ 투 고 일 : 2023년 03월 14일
■ 심 사 일 : 2023년 04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05월 02일